

투데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올해로 10년째

道 농기원 21~30일 나주시 명품 농산물 전시

都農 상생 한마당·유기농 신기술 등 농촌체험

명품 친환경 농·특산물과 유기농업 분야의 신기술,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을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나주에서 열린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나주시 산포면 농업기술원에서 '제 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린(Green)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를 주제로 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올해로 10년째다. 밖으로 FTA의 거센 파도, 안으로 원자재값 상승 및 고령화 등으로 국내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가는 상황에서 '농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향기체험관, 농업예술관, 산업곤충관, 녹색식품체험관, 유기농업관, 녹색축산관, 친환경농자재관 등 8개 전시관이 운영되고 22개 시·군의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13개 단체의 향토음식 판매장터가 마련된다.

전년도와 달리, 아열대 식물이 어우러진 향기체험관과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따라 산업곤충관을 새롭게 꾸몄고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식품관을 수출비즈니스관과 녹색식품체험관으로 확장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농업박람회를 통해 8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방문객들을 상대로 한 농산물 현장판매를 통해 2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300억원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민수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박람회가 생명농업의 중요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소

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만 별도로 전시 판매한다. 부대행사로 허수아비·연 만들기 등 10종류의 체험 행사 코너가 마련됐고 난타·풀바 공연 등도 열린다.

또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을 소개하고 수출계약과 구매약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농업박람회를 통해 8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방문객들을 상대로 한 농

산물을 현장판매를 통해 2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300억원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장은 "농업박람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주말 영산강길 걷기대회

영산강 물결을 따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11 영산강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나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사가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열린다.

영산강길 걷기대회는 참가비 없

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도 필요없다.

코스는 나주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영산강 강변 도로를 따라 죽산보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거리

이며, 가족이나 연인은 물론 노인들도 참여해 1시간 이내에 완주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구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광주일보·나주시 주관

호반건설, KBC 경영권 인수

주택전문 중견 건설업체인 호반건설(대표이사 최종만)이 광주·전남 민영방송인 KBC 광주방송의 경영권을 인수한다.

호반건설은 최근 계열사인 (주)호반이 KBC 대주주인 (주)럭키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 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 승인이 통과되면 호반건설은 기존 계열사 취득 지분을 합쳐 KBC주식의 30% 가까운 지분으로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죽산보 바로 옆에는 610kw급 소수력 발전소 2기가 설치돼 32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며 주변에는 예술공원과 자전거로, 산책로

도 들어섰다. /김지율기자 dok2000@

나, 최근 지역 민영방송 사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최대주주 측으로부터 경영 참여와 최대주주 지위 취득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반건설은 도급순위 49위(광주·전남 3위)의 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다.

최근 수원 광교와 광주 수완, 대전 도안 등에 35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인 올 한해 7500가구 공급, 2조 원대 매출이 예상된다.

/박정웅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100여명은 5일 광주시청 앞 평화공원에서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생산비 보장없고 농민 등치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전면 거부한다"며 "공공비축미 수매제를 폐지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쌀값 보장,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집회

농민 1200여명 광주·전남 15개 시·군청·농협서

공공비축미 방출 중단과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청 및 농협 앞에서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는 농민 100여명이 트랙터와 이앙기, 농사용 차량 등 농기계 10여대를 끌고 와 농

산물 값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순천에서는 100여명의 농민들이 트랙터와 트럭 등 농기계 10여대를 몰고 순천시청 앞에 모여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식을 마친 후 시청 앞에서 나막사를 불태웠으며 생산비 보장 등을 촉구한 뒤 농기계로 시내를 돌며 거리 선전을 벌였다.

보성과 장흥에서도 각각 100여명

의 농민이 농기계 수십대와 함께 시위에 나서는 등 이날 오전 전남지역 곳곳에서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울려 죄졌다.

이날 시위에는 광주전남연맹 주산농기계 300여대와 트럭 400여대, 농민 1200여 명이 참여했다.

농민들은 성명을 통해 "쌀값 하락 사태는 정부의 폭력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생산비 보장 없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백운고가 철거 본격화

광주 남구 TF팀 가동

광주시 남구가 테스크포스팀(이하 T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백운고가 철거 준비에 들어간다.

남구청은 5일 "오병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건설 분야 전문가, 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백운고가 철거 TF팀'을 오는 9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팀은 백운고가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 백운고가 철거 후 광장 교차로 운영 방식도 논의한다.

지난 1989년 준공된 백운고가는 폭 15.5m, 길이 385.8m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시간당 1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F1법인 카보 전대표 해임 취소 패소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사회·주총결의 하자 없다"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5일 카보 주주사인 '엠브리지 홀딩스(MBH)'와 MBH의 공동대표이사인 정영조·장홍호씨가 낸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보 주주사인 SK건설은 MBH와 사이에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므로

SK건설이 주주의 자격을 가지므로 MBH는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인 정·장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뤄졌고 2주 전에 서면으로 소집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자신들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씨가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부지법본부=고규석기자 yousun@

부실채권(못 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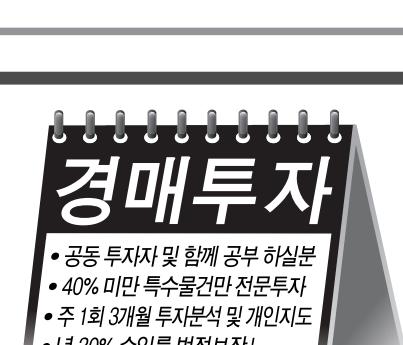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 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9000@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식세스 · 개인사업자대출 청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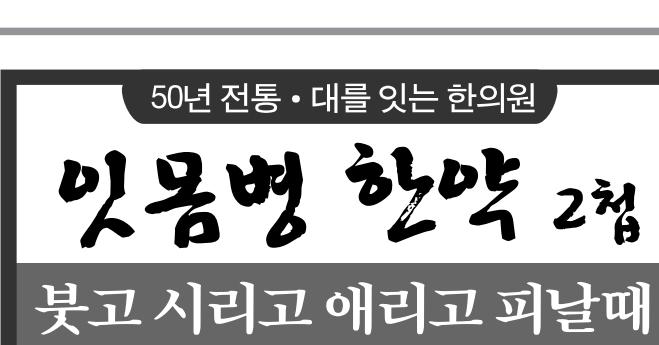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답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 정도(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답보대출

대출한도 실기거래 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 연 5%~7.5% (은행금융권) / 추순위 : 월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 이 齒 치 료 치 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법 제110725-중-9092호

무방문 · 무답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0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제40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견승과 대내외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10월 27일 (목)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회관 2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분할계좌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나. 이사 선임 후보자에 관한 사항

구 분 생년 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비고

사내